

후 보 자 인 적 사 항

후 보 자 성 명	(한글) 백 윤 흥 (한자) 白 潤 興 (영문) Yunheung Paek	연락처	(전 화) 02-880-1748 (휴대폰) (메 일) ypaek@snu.ac.kr
주 소	(자 택) (직 장)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소 속	(근무처)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전기·정보공학부 (직 위) 교수		
학력 및 주요 경력			
<학력 및 직장 경력> ●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부 학·석사학위를 취득하고, 미국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전산학과에서 1997년 공학박사 취득. ● 뉴저지 주립공과대학 전산학과 조교수로 재직(1997-1999)했으며, 한국과학기술원 전기 및 전자공학과 조·부교수를 역임(1999-2003)하고,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에서 부교수(2003-2007), 교수(2007-)로 재직. <수상 경력> ● 2007년 ACM LCTES의 Best Paper상을 포함 국제학술대회 우수논문상 5회 수상 ● 2009년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우수연구상 ● 2014년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우수논문상 ● 2014년 한국정보처리학회 학술대상 수상 ● 2017년 행정자치부 장관상 (정보보안 분야 우수 연구업적 표창) ● 한국정보과학회 및 한국정보처리학회 학술대회에서 최우수·우수논문상 8회 수상 ● 사이버안보 논문 공모전 최우수상 포함 우수상 3회 수상 ● 2020 삼성전자 산학협력 최우수 논문상 수상 ● 2023년 11월 국정원장 표창 (예정). <연구 및 교육 실적> ● BK21 우수학술대회 논문 60여 편과 기출판 또는 출판 예정인 SCI급 국제논문지 50여 편을 포함하여 현재까지 총 180편이 넘는 국제논문지와 국제학술대회 논문을 게재함(PLDI, ATC 등 탑티어 시스템 학회 논문 29편, S&P, CCS, Security 등 4대 보안학회 논문 9편, DAC 등 HW/SW 설계 분야 우수학술대회 논문 30편). ● ACM CCS와 Usenix Security 논문을 바탕으로 미국에 등록된 특허를 기반으로 개발된 보안 HW IP가 삼성전자 상용 DTV에 탑재된 후 2017년 세계 시장에 출시. ● 대학 전임교원 7인을 포함한 박사 23명과 석사 41명의 졸업생 배출.			

학력 및 주요 경력 (계속)

<대내외 활동>

- IEEE/ACM Transactions 논문지 부편집장, 초청편집장 및 ACM LCTES 학술대회장을 포함하여 다수의 국제 학술대회 조직위원 또는 심사위원으로 활동.
- 한국정보처리학회 학술위원장 등 다양한 부회장 직책을 다년간 수행하며 공로상을 2회 수상.
- 한국정보과학회, 한국정보보호학회, 대한전자공학회 및 SW 감정평가학회 포함해 여러 국내 학술단체 편집위원회, 이사회나 강연 등 다양한 학술 활동에 참여.
- 한국정보보호학회 AI보안연구회를 2019년 공동 창립하고 현재 연구회 위원장으로 300여 명이 참여하는 단기 강좌 및 워크숍을 주최하여 국내 및 해외 AI 및 보안 분야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동 학술 활동의 장을 제공.
- 국내외 다수의 기업에 기술이전과 자문을 수십 차례 수행하고 수산INT 사외이사 역임.
- 2014년 이후 한국정보통신기획평가원 자문 및 과제 기획에 참여.
-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자동차연구원 커넥티드 모빌리티 얼라이언스 보안분과위원장 (2022~2024).
- 2021년부터 BK21 Four 응용과학 전기전자 분야 “정보기술 미래인재 교육연구단” 사업(참여교수 55명, 연 60억 규모)의 단장을 맡아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 대학원 연구 인력양성 사업을 주도 (2023년 중간평가 결과 7개 전국단위 연구단 중 상위 20% 우수연구단으로 선정).
- 서울대학교 정보화위원회, 학생지원위원회, SNU in the world Program 위원회 등 다수 교내 위원회에 소속되어 학교 대내외적인 다양한 행정에 참여하고 제도 개선에 참여.

후 보 자 출 마 소 건 서

한국정보처리학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수석 부회장 보궐 선거에 입후보한 서울대학교 **백운홍**입니다. 여러 면에서 스스로 부족하다고 생각되지만, 회원 여러분의 권유와 학회에 대한 저의 깊은 애정과 책임감 때문에, 이번 선거에 입후보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2006년 이후 우리 학회의 이사와 부회장의 역할을 맡아 학회 발전에 일조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춘계 및 추계 학술대회 프로그램위원장과 조직위원장을 역임하여 학술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에 이바지하였습니다. 특히 올해 2023년 봄, 제가 재직하는 서울대학교에서 유치한 ASK 행사는 학회장님과 모든 회원 여러분의 노력 덕분에 성공적으로 이루어졌고, 이에 저 역시 작은 이바지를 할 수 있었던 사실에 기쁨을 느끼고 있습니다.

올해로 **창립 3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학회의 그동안 성장과 발전은, 모든 회원의 끊임없는 노력과 헌신의 결과물입니다. 이러한 업적과 전통이 계속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동료 여러분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論語에서 사람이 서른이 되면 사회의 어른으로서 '而立', 즉 자신만의 인생관이 서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는 학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이 중요한 30년의 시점에서, 우리 학회는 사회를 이끌어가는 서른의 어른처럼 우리의 **학회관**을 가지고 대한민국 ICT 분야를 대표하고 이끌어 가며, 우리 사회의 연구자들과 손을 잡고 새로운 학문의 지평을 넓혀나가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요구에 따라, 곧 다가올 2024년에 제가 학회장이 된다면, 우리 학회의 새로운 위상에 걸맞은 우리만의 학회관 내진 학회 철학을 회원 여러분과 같이 수립하고 그에 부합하는 학회 운영전략을 세울 것입니다. 이를 통해 모든 회원께서 지금보다도 더 신나게 또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학술 교류의 터전**을 세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도 제가 대표가 될 학회는 회원 각자의 목소리를 듣고, 그것을 학회 운영에 반영할 수 있는 다양한 플랫폼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저와 동시에 임기를 시작하는 2024년 수석 부회장님과 여러 학회 임원분들과 다음과 같은 정책들을 비중을 두고 실행하고자 합니다.

- **논문 발간**은 학회 학술 활동의 기본이며 우리의 중점적인 사업입니다. 현재 학회가 발간하고 있는 **국문 및 영문 논문지**, 그리고 **학회지**의 발간 상황을 파악하여, 논문의 품질을 향상하고 학회의 위상에 걸맞게 구조를 개선함으로써 수익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위상이 하락 중인 CUTE와 같은 국제 학술대회는, 학회 산하의 연구회 및 지회 행사와 연계하여 우리 학회 회원과 해외 연구자 간의 유익한 교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구조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최근 우리 학회는 회원 및 임원의 구성 면에서 질적, 양적인 정체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회는 새로운 연구자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초대하며, 그들의 회원 가입을 강력히 권장하고 학회 활동 강화를 위해 임원진으로 등용할 계획입니다. 먼저 베이비붐 세대 연구자들의 대량 은퇴로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신진 연구자의 대학 및 연구 기관 임용**이 최근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이들을 학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시키겠습니다. 동시에, **산업계** 전문가들을 임원진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모심으로써, 학교와 산업계 간의 결합이라는 우리 학회의 독특한 강점을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나라 **국책연구소**는 **산·학·관** 간의 중요한 연결 고리 역할을 하고 있기에, 20년 이상의 국내 연구소와의 저의 연구 협력 및 교류 경험을 바탕으로, 연구소의 핵심 인력을 학회 활동에 더욱 활발하게 참여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명실공히 우리 학회의 궁극적 목표인 **산·학·연**의 통합과 협력, 이를 바탕으로 **정부 기관**과 교류를 더 확대 강화하여, ICT 관련 정책 수립 및 과제 기획에 우리 학회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연구회와 지회**는 학회 성장에 양분을 제공하는 뿌리 같은 존재입니다. 이에, 저는 연구회와 지회의 성장이 학회 전체의 발전으로 이어지는 것임을 인식하고, 이들과의 유기적이고 밀접한 관계 구축에 앞장서겠습니다. 우선, 전국 6개 지회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학회와 지회, 지회와 지회 간의 협력을 강화하며, 서로의 깊은 연대를 위해 다양한 행사를 기획하고 확대하고자 합니다. 또한, 숨 가쁘게 변화하는 ICT 특성에 발맞춰 기존 연구회의 활동을 점검하고, 구조 개선과 함께 새로운 분야의 연구회를 신설하여 활성화하는 데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우리 학회의 규모와 같은 대규모 집단에서 구조적인 개선이나 체질의 변화는 한 명의 학회장이 1년이라는 짧은 재임 동안 완전히 이루어내기는 어려운 것이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앞서 열거한 활동과 계획들은 학회 발전의 단계적이고 전략적인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결과를 우려해 시작을 회피한다면, 학회의 계속된 발전과 국제 경쟁력 강화는 더욱 어려워질 것입니다. 저는 '而立'의 마음으로, 새로운 철학의 바탕 위에 지금까지 언급한 계획들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며 학회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원동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